

투데이 칼럼

추락사고 막을 수 없나?

최근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다는 뉴스를 접했다. 지난 8월 영어 곡이었던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한국어 곡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으로 11월 30일 메인 싱글 차트의 정상을 차지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국민뿐 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 또 하나를 뉴스를 접했다. 그것은 OECD 국가 중 '산재 1위' 국가라는 사실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9월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자수 80,299명, 재해율 0.43%이다. 이 중 사망자수는 1,571명이고 현장에서 떨어짐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자 수는 660명(사고 사망인원율 0.35%)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를 재해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떨어짐(추락)이 37.3%를 차지하고 끼임, 화재·폭발 사고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를보면 떨어짐(추락) 사고 하나만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전체 사망 재해의 1/3 이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적어도 250명 가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떨어짐(구 멍칭 추락)'이란 말이 가 있는 쪽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위에서 아래로, 위치



장 지웅

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장

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다.

최근에 발생한 떨어짐 재해를 보면 철골구조물 위 작업 중 떨어짐, 슬레이트지붕 이동 중 파손에 의한 떨어짐, 아파트 외벽 보수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앉기 위한 준비작업 중 5m 아래로 떨어짐 및 벌크차량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등이 있다. 이 사례들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전에 우리의 작은 주의력과 관심이 있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의 위험 인지와 인지한 위험을 보고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침묵하면 승인'이 되기 때문이며 순간 사라지는 '증발현상'으로 찾아야 한다.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에 앞서서 동종 또는 유사 떨어짐 재해 예방하기 대책을 보면 사고를 미연 방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재해발생 이후 대책의 대부분은

개인보호구인 안전모 착용 그리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고난도의 기술적, 공학적 대책이 아닌 누구나 알고 있고 실천하기 쉬운 관리적, 교육적 대책이다.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만고의 진리이자 상식이다. 오늘도 어느 장소 어느 현장에서 이 만고의 진리로 인해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이젠 끝내야 한다! '떨어짐은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현장에 정착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 있는 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사고와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 인지와 인지한 위험을 보고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침묵하면 승인'이 되기 때문이며 순간 사라지는 '증발현상'으로 찾아야 한다.

다음은 현장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이다.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은 물론 관계자의 심리적 상태까지 알려고 해야 한다. 녹녹치 못한 현장의 상황에 시간까지 @기는 현상은 관

리감독의 어려움과 허술함이 드러날 수 있다.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재개시 반드시 인원점검,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느 위치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높이가 있는 곳에서 이동하는 모든 작업자나 관계자는 움직이기 전, 단 3초, 바라보고 생각하는 '안전 여유시간'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작업역전 및 특성에 알맞은 보호구 선택과 올바른 착용 그리고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과 통행방법에서 있어서 정해진 신호방향을 지키는 것이며 세 번째로 지게차 등 차량제역역운반기 계기구 등의 구내운행속도 10KM/H 이내 등 제한된 운행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네 번째로 출입제한 지역 무단진입이나 단독작업 같은 제한 및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섯 번째로 화기나 전기, 유해물질 취급 시 화재나 폭발, 중독, 감전 등 사고에 대비하고 여섯 번째로 자격이 필요한 작업 시 자격 요건 불충분 시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등 기본적인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할라', '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불안정한 행동이 붙어질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젠 살리자, 살자! 어떤 형태의 작업이나 이동, 운반에 있어서 안전사고와 재해를 막아야 한다. 그 중 떨어짐은 지금까지도 막을 수 없다.

사설

코로나 확산 계속 경계해야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조해 말하고 있거니와 지난 달 26일 0시 기준의 기록을 계속 상회해야 한다. 그때 589명이라는 폭발적 기록을 보였다. 그 후 500명대가 시들간 계속되었다. 그 후 4백명대 수준이더니 다시 511명으로 뛰어 올랐고 다시 540명으로 뛰어 올랐다.

전북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지역의 누적 환자가 378명으로 공식 보고 되었다. 그러나 사실을 쓰고 있는 오후 2시47분에 388번째 확진자 확보 안전 문자가 떴다.

서울의 경우도 코로나 창궐이 맹렬하다. 806명으로 9천 명대를 넘고 있다고 말한지 하루만에 19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9천명대를 돌파했다. 그래서 2일 오전 10시 기준 9159명의 누적환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하루밤새 252명이 또 불어나 현재 9421명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 지역도 심각하다. 7658명으로 대구시의 누적환자 수와 그 격차를 현격히 벌리고 있다.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를 철저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것은 중앙의 언론사들도 따깝게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거듭 말하지만 전북의 경우도 심각하다.군산 전주 익산은 물론이고 완주군도 2단계로 격상될지 머뭇머뭇하고 있다. 경제 중심 지역 모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라면 그 단계가 높아질까 염려된다. 2.5단계나 3단계로 격상되면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이다.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다들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매일 강조해 말하고 있거니와 코로나를 두고 그 누구도 일탈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전북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진 것은 서울 경기등 수도권을 방문하거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과 접촉해 병을 옮은 탓이 크다.

다들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가운데 위기 의식을 가져야겠다.거리 두기 실천이 제대로 안되면 사람 만남 자체가 금지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북형 뉴딜 일자리 추진 속도감 있어야

전북형 뉴딜 일자리 추진 현황이 궁금하다. 속도감이 있어야겠는데 말이다.

도지사를 비롯해 브레인들은 지역을 위해 능동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정부의 뉴딜 일자리 방침이 발표된 지 오래인데 이제서야 시군 협의체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하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이렇게 굼떠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현안을 쟁기고 대비해야 한다. 지역 경제가 몰락한 지 오래 됐건만 정부와 정계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형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아무래도 전북이 광주와 전남에 비해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음이 뚜렷하다. 이쪽의 주요 현안들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다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못 마땅하다.

전북도는 광주 전남과 별도로 지역의 발전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의 조급식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지난날과 비교한 것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마땅치 않다.

전북형 일자리 사업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전북도는 스스로 공표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형 일자리 추진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은 부단히 뛰어아겠다.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오리건주 총격 사망 흑인 소년 추모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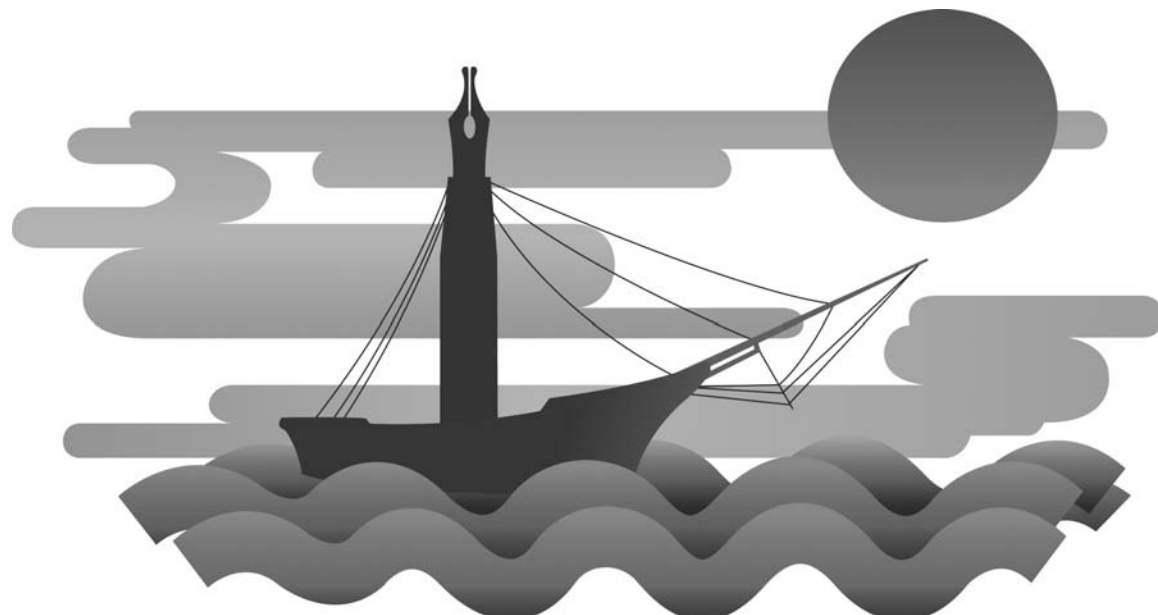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메드퍼드의 잭슨 카운티 법원 앞에서 아이든 엘리스의 추모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이 바닥에 분필로 추모 메시지를 그리고 있다. 10대인 엘리스는 모델 주차장에서 밤늦게 음악을 너무 크게 틀었다고 불평한 로버트 키건이라는 백인 남성의 총에 맞아 살해됐다.

이스라엘 국경 경찰과 충돌한 팔레스타인 시위대



지난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도시 살피트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이스라엘 국경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